

중국 인민일보를 통해서 보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

우효영¹, 김형곤^{2*}

¹동명대학교 언론영상학과 박사과정, ²동명대학교 언론영상학과 교수

The image of South Korea reported by the People's Daily

Xiao-Ying Wu¹, Hyeong-Gon, Kim^{2*}

¹Dept. of Mass Communication and Advertising., Tong-myong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and Advertising., Tong-my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중국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대상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민일보>에 게재된 한국 관련 기사 253건이다.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해 기사 건수, 지면, 출처, 주제, 보도성향 등 5가지 항목에서 한국 관련 기사를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 건수는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고, 기사 주제는 정치, 사회 분야가 많았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군사 분야 기사가 다수 게재되었고, 군사 분야 기사에서만 부정적인 성향의 기사가 있었다. 대다수의 <인민일보> 한국 관련 기사는 한국을 긍정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인민일보>는 긍정적인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국가이미지, 인민일보, 중국, 한국, 사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Korea's national image is being established through content analysis of articles related to Korea by the People's Daily in China. There were 253 articles related to Korea published in the People's Daily from 2016 to 2020.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s, articles related to Korea were reviewed in five categories: number of articles, page, source, subject matter, and propensity to repor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number of articles related to Korea in the People's Daily has decreased since 2016, and the topic of articles has been in many political and social sectors. In 2016 and 2017, South Korea's decision to deploy THAAD led to a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military sector, and there were negative articles only in military articles. The majority of articles related to Korea in the People's Daily show that it describes Korea positively or objectively. In this regard, the People's Daily shows that it is building a positive image of Korea.

Key Words : National image, People's Daily, China, Korea, THAAD

*Corresponding Author : Hyeong-Gon Kim(hgkim@tu.ac.kr)

Received December 21, 2021

Accepted March 20, 2022

Revised January 21, 2022

Published March 28, 2022

1. 서론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역사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룬 나라였다. 한국전쟁 이후 중국과 한국은 이념적 대립관계 때문에 서로 소원한 관계에 처해 있다가,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했다. 1998년에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좋은 이웃과 우호적인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2003년에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수교 이후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이룩해 되었다[1].

2014년과 2015년, 중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중국인의 세계 인식>이라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주변국 중 러시아, 파키스탄과 함께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그런데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도 있지만, 충돌적인 이익도 있어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양국 관계는 더 이상 높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3]. 특히 2016~2017년 한국의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양국 관계는 부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중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사드 사태 이후 한중 관계의 변화가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보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타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지만, 언론 보도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 환경도 한국 등 자본주의 국가와 다른 미디어 환경이 형성됐다. 특히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이며, 중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문이다. <인민일보>는 중국 정부의 태도를 반영하여 중국 대외 문화 교류의 중요한 창구이며, 다른 중국 언론 보도들도 핵심 구상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보도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알 수 있는 것이면서, 많은 중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2. 국가 이미지와 언론

국가 이미지는 어떤 국가를 연상할 때 기억나는 속성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이미지는 단순한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다층적인 이미지다[4].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은 개인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관계 채널, 언론과 자료 접촉을 통한 텍스트 채널, 특정 국가 방문 또는 개인적 접촉을 통해 형성된 개인적 채널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5].

다른 나라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른 나라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언론매체이다[6].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거리, 시간, 공간의 한계 그리고 국제 정세의 역사적 맥락과 관련 배경에 대한 완전하고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TV, 신문, 등과 같은 언론매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7].

그런데 언론매체에서 전달하는 내용은 현실의 객관적인 반영이 아니다. 언론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은 선택, 가공, 재구조화된 "의사환경(pseudo-environment)"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8]. 그렇지만 이런 의사환경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언론매체가 전달하는 국가 이미지에 대한 내용은 그것을 수용하는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9]. 특히 공신력이 높은 언론매체의 경우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볼 때, 각국의 언론매체는 자국의 발전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현상을 비추고 규정함으로써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10]. 언론사들은 국제 뉴스를 다룰 때 자국 정부가 제시한 외교정책의 틀에서 국제적 사건을 기사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일한 국제적 사건도 자국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룬다[11]. 특히 중국 언론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 이념 선전도구이자 교육도구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12], 국제 뉴스를 다룰 때 중국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려 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이다.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원칙과 정책, 명제를 중국과 해외에 전파하고 소개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13]. 중국 내에서 <인민일보>는 대내의 선전을 책임지는 언론사로서 특별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으며[14], 당과 정부의 외교적 입장이나 대외정책을 반영해서 전달하고 있다[15]. 이런 면에서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를 살펴보는 것은 중국 내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어떠한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2016년의 사드 사태 이후 한중 양국 관계에 변화가 생겼는데, <인민일보>가 보여주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 내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 내용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 3: <인민일보>에서 구축한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어떠한가?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5년 동안 <인민일보>가 구축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인민일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주제어 ‘한국’과 ‘한’을 검색했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271건의 기사를 찾아냈다. 1) 그리고 이 중에서 ‘한국’과 ‘한’이라는 주제어가 기사에 들어가 있지만 한국과 관련이 없는 18개의 기사를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253개의 기사가 연구대상이 되었다.

내용분석의 유목은 기사 건수, 지면, 출처, 주제, 보도성향 등의 5가지이며, 각각 5년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 지리적 요인은 특히 국익 측면에서 국가 정치적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인 국제 정치와는 달리 지정학에 한계적인 효과가 있다. 즉, 두 이웃 나라가 서로 우호적이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최근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웃 나라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인민일보>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관련 보도는 1301건, 러시아 관련 보도는 682건, 일본 관련 보도는 517건이었다. 한국이 관련 보도 건수는 나머지 4개국보다 많지는 않지만 중국과 한국의 마찰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반영한다.

먼저 5년 동안의 <인민일보> 한국 관련 기사의 건수 변화를 살펴보았고, 이들 기사가 주로 어떤 지면에 실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면은 1면에 실린 경우와 2-3면에 있는 종합면에 실린 경우, 국제면에 실린 경우와 그의 기타면을 구분하였다. 기사 출처는 <인민일보> 자체에서 나온 것과 신화사(新華社) 출처인 것을 구분하고, 정부의 공보(公報), 회의 문서, 연설문 혹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기사 주제는 정치, 경제, 문화/과학기술/스포츠, 사회, 역사, 군사 등 6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문화, 과학기술, 스포츠는 건수가 적어서 한 가지로 통합하여 살펴보았다. 기사의 보도성향은 기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긍정적 성향, 중립적 성향, 부정적 성향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유목 분류에 따라 기사 내용을 분석하였고, 5년간의 변화도 아울러서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인민일보>가 드러내서 보여주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어떠한 것인가를 판단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3명의 언론학 전공자가 253건의 기사 중 10%에 해당하는 25건의 기사에 대한 분류작업을 우선 실시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신뢰도 측정 결과, 일치도 0.92로 나와서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4. 연구결과

4.1 기사 내용분석

4.1.1 기사 건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인민일보> 한국 관련 기사 건수를 보면, 아래의 Table 1에서 보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소폭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도 기사는 83건에 달했는데, 이것은 2016년 초 중한 교류 협력 프로젝트가 성사되면서 양국의 경제, 무역, 문화 교류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 하반기에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한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7년부터 한국 관련 보도는 계속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19년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인민일보> 취재 내용은 국내 뉴스를 보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관련된 뉴스

의 수량이 감소했다. 2020년 들어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중한 협력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서 기사 건수가 다소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Table 1. Number of Korean related articles published by People's Daily

	2016	2017	2018	2019	2020	In total
Amount of reports	83	51	42	31	46	253

4.1.2 기사 지면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가 게재된 지면을 보면 아래의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제면에 155건의 기사가 게재되어 전체의 61.3%를 차지하고 있다. 1면에 게재된 기사는 20건으로 7.9%를 차지했다. 1면에 게재된 기사는 주로 중한 양국 고위층의 정치적 교류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종합면에 실리는 한국 관련 기사는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국제면의 기사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뉴스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2017년에 1면 보도 건수가 다른 해에 비해 많았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예상되는 중한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에 종합면에 실린 한국 관련 기사가 32건으로 많았던 것은 사드 배치 관련 기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Table 2. Layout of Korean related articles published by People's Daily

Layout	2016	2017	2018	2019	2020	In total
Front page	4	6	4	3	3	20
General layout	32	12	7	9	11	71
the International section	43	33	30	19	30	155
Other pages	4	0	1	0	2	7
In total	83	51	42	31	46	253

4.1.3 기사 출처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의 출처는 위의 Table 3에 나타난 것처럼 <인민일보> 출처가 231건으로 전체의 91.1%를 차지하였다.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기자로 하여금 일차적인 정보를 취득하게 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관련 기사는 대부분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인민일보> 기자들이 작성한 것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신화사 출처의 기사가 소폭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Table 3. Sources of Korean articles published by Chinese media

Sources	2016	2017	2018	2019	2020	In total
People's Daily	76	49	39	27	40	231
Xinhua News Agency	1	2	3	3	5	14
Others	6	0	0	1	1	8
In total	83	51	42	31	46	253

4.1.4 기사 주제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를 주제 별로 분류해 보면, 아래의 Table 4에서처럼 정치 관련 기사가 82건 (32.4%)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 관련 기사가 68건 (26.9%)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정치 관련 기사가 많은 데에는 <인민일보>가 중국 공산당 기관지로서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 관심이 많고, 미국, 일본, 북한 등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회 관련 기사는 주로 한국의 사회 현실에 초점을 맞춘 기사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현실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의 편리한 생활여건 등 긍정적인 면도 많이 보도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변화 추이를 보면, 군사 분야의 기사가 2016년과 2017년에 거의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20년에 경제와 사회 분야의 기사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

Table 4. Topics of Korean articles published by People's Daily

Reporting topic	2016	2017	2018	2019	2020	In total
Politics	20	20	14	19	9	82
Economics	14	0	2	0	10	26
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Sports	8	1	2	2	5	18
Society	18	5	17	7	21	68
History	5	10	5	1	0	21
Military science	18	15	2	2	1	38
In total	83	51	42	31	46	253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서 정치 분야 기사의 비중이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5 보도 성향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의 보도 성향을 보면, 아래의 Table 5에서 보는 것처럼 긍정적 성향의 기사가 118건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중립적 성향의 기사는 105건으로 41.5%, 부정적 성향의 기사는 30건으로 11.9%를 차지했다. 이를 볼 때 <인민일보>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동반자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부정적 성향의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성향의 보도는 2016년과 2017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사드 배치로 인한 양국 간의 갈등관계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양국 간의 교류에 대한 기사는 대체로 긍정적인 성향으로 나타났고, 중립적인 성향의 기사는 한국의 사회현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내용이 많았다.

Table 5. Reporting tendency of Korean related articles in People's Daily

Reporting tendency	2016	2017	2018	2019	2020	In total
Positive	36	16	20	18	28	118
Neutral	31	21	22	13	18	105
Negative	16	14	0	0	0	30
In total	83	51	42	31	46	253

4.2 기사 내용의 변화

앞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인민일보> 한국 관련 기사를 기사 건수, 지면, 주제, 출처, 보도 성향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내용분석을 해보았다. 앞의 내용분석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민일보> 한국 관련 기사의 변화가 주로 기사 건수, 주제, 보도 성향 등 3가지 측면에 집중해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변화의 주요 원인은 중한 외교관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한 관계는 매우 좋았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초기의 긍정적인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 2014년 11월 중한 FTA 협상을 완료하고, 2015년 9월 3일에는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을 다지고

심화시켜 나가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양국 관계는 확연히 달라지게 되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결사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선택했고, 그 결과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갑자기 냉랭해졌다. 중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 활동을 제한하는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민일보>는 한국 관련 기사의 내용을 조정했고, 기사 건수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기사 주제 면에서는 군사 분야의 기사가 2016년과 2017년에 집중해서 나타났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 경제, 문화 분야의 기사 건수는 급감하게 되었다. 보도 성향 면에서는 군사 분야의 기사에 부정적인 기조가 집중되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다시 안정기를 맞이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MD 체제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에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이런 태도 덕분에 중국 외교부에서도 중한 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게 되고, 중한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 개선이 있고 난 후인 2018년부터는 <인민일보>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한 건도 게재되지 않았다. 군사 분야의 기사도 게재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민일보> 한국 관련 기사의 건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2020년 들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소폭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코로나 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 노력을 강조하면서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기사들이 있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사 주제는 사회 분야, 문화 협력 및 교류 분야, 정치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기사의 보도 성향은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 기간에 부정적인 성향의 기사는 없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기사 내용의 변화는 중국과 한국 간의 외교관계 변화와 사회상황의 변화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2년간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성향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대체로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는 한국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4.3 한국의 국가 이미지

앞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를 살펴본 결과, <인민일보>는 대체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대상이 된 253건의 기사 중 긍정적인 성향의 기사는 118건(46.6%), 중립적인 성향의 기사는 105건(41.5%)인데 비해, 부정적인 성향의 기사는 30건(11.9%)에 지나지 않았다. 부정적인 성향의 기사는 2016년과 2017년에 집중되었고, 군사 분야의 사드 배치 관련 기사들이었다. 사드 배치 관련 기사를 제외하면 <인민일보>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 Topics and reporting trends of Korean related articles in People's Daily

Reporting topic	Reporting topics			In total
	Positive	Neutral	Negative	
Politics	49	33	0	82
Economics	8	18	0	26
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Sports	18	0	0	18
Society	31	37	0	68
History	12	9	0	21
Military science	1	7	30	38
In total	119	104	30	253

국가 이미지는 여러 층위에서 형성된 요소들이 모여서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Table 6에서 보는 것처럼, <인민일보>의 보도 성향은 기사 주제별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 문화/과학기술/스포츠, 역사 분야의 기사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상의 기사가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 나타나는 한국 정부의 노력, 역사적 관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첨단 기술, 문화,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기사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설정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사회 분야의 기사에서는 긍정적인 성향의 기사보다 중립적인 성향의 기사 비중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인민일보>는 한국의 경제 상황과 사회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면서 중립적 성향의 기사를 많이 게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인민일보>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기사는 군사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의 사드 배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2016년과 2017년에 게재된 군사 분야의 기사를 제외하고 나면 <인민일보>에서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의 공식 기관지이다. <인민일보>의 기사 내용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양국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드 배치라는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반적인 한국 관련 기사는 대체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인민일보>가 구축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53건의 기사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기사들을 기사 건수, 지면, 출처, 주제, 보도성향 등의 유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사 건수는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0년 들어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보도 지면은 국제면에 집중되어 있었고, 기사 출처는 <인민일보>의 주한 특파원이 주를 이루었다. 기사 주제에서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보인 것은 정치와 사회 분야였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군사 분야 기사가 다수 게재되었다. 보도성향을 보면, 긍정적 성향과 중립적 성향의 기사가 88% 가량 되었고, 부정적 성향의 기사는 사드 배치 관련 기사에 한정되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의 변화 상황을 보면, 양국 간의 외교관계의 변화가 기사내용의 변화에 미치는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2016년 사드 배치 결정은 <인민일보> 한국 관련 기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의 건수가 줄어들었고, 군사 관련 기사에서 부정적 성향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하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과 한국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찾게 되었다. 2018년부터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에서 부정적 성향의 기사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인민일보>가 구축하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대체로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형태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특수한 문제에 있어, 예를 들어 중국의 국가 이익과 관련된 사드 배치와 같은 문제에 있어, <인민일보>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성향의 기사를 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과의 밀접한 정치, 경제 관계를 고려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인민일보>는 한국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친밀한 협력자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보도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인민일보>의 근본적 속성과 관련이 깊다.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의 대변자로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태도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수입원이자 가장 큰 수출처가 되었다.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진 중국과 한국은 서로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국 관계에 갈등이 생긴 적도 있지만, 양국 정부는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상황은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에서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성향의 보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함을 느꼈고, 후속 연구에서 이를 보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 본 연구는 <인민일보>에서 한국 국가 이미지를 분석해 파악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미디어의 영향력과 대중의 수용 습관에 비춰볼 때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신문의 영향만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선택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2016-2020년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를 선택해 내용을 분석했는데,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기에는 시간 범위가 비교적 짧다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시간 범위를 더 넓혀서 내용분석을 하게 되면 변화의 흐름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REFERENCES

- [1] J. W. Yu. (2020). Study on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towards China, PhD's Thesis of JiLin University.
- [2] Kun Zhang & R. Y. Cui. (2016). The Image of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Eyes of the Chinese Public and Influencing Factors: A Study Based on Two Rounds of National Polls (2014-2015),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10(3), 117-118.
- [3] People's Daily.
<http://www.people.com.cn/GB/50142/104580/index.html> (accessed June 25, 2021).
- [4] Y. Lee. (2007). Korean State Image and the Change of Storytelling/Narrative in Britain: A Semiological Analysis on The Times 2002-2005.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1(1), 32-58.
- [5] Kunczik, M. (1996). Image of Nations and International Public Relations. New York: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6] Galtung, J. & Ruge, M. H. (1965). The structure of foreign news. *Journal of Peace Research*, 2(1), 64-90.
- [7] Chen Wei. (2014). Media Discourse in the Field of Power : The Construction and Discourse Strategy on the Image of Mainland China in Hong Kong Newspapers. *Chinese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7(2), 17-32.
- [8] X. Z. Teng. (1987). *Television Sociology*. Anhui Literature and Art Publishing House, Anhui.
- [9] Peng Weibu. (2005). Analysis of news reports between Chinese and Korean media. *Northeast Asian studies*
- [10] J. Heo & C. Y. Wen, (2011). A Contents Analysis on Korea-related News in Chinese Major Newspaper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1(4), 557-589.
- [11] J. Kim, J. park & S. Kim. (2002). The Comparative Analysis of National Image of Korea, Japan, and China in the US Major Newspapers. *Korean Society for Advertising Education*, 0(54), 167-189.
- [12] Qian Xinbo. (1990). Recent developments in Chinese journalism. In L. John Martin & Ray Eldon Hiebert (Eds.). *Currents Issues i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N.Y.: Longman.
- [13] Ji Zhiye. (2013). China's surrounding areas are in urgent need of top-level design.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2013(10),1-2.
- [14] Lu keng. (1990). The Chinese communist press as I see it. In L. John Martin & Ray Eldon Hiebert (Eds.), *Currents Issues i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N.Y.: Longman.
- [15] Z. Zhang, etc, (2006). *China External Communication*, Beijing Communication University Press, Beijing.

우 효 영(Wu XiaoYing)

[장학원]



- 2009년 6월 : 중국 장춘이공대학교 광고학과(문학사)
- 2013년 6월 : 중국 동북사범대학교 신문방송학과(언론학석사)
- 2013년 11월 ~ 현재 : 장춘건축대학교 강사
- 2019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언

론영상광고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광고학원리, 마케팅학
- E-Mail : 532226935qq@gmail.com

김 형 곤(Kim Hyung-gon)

[장학원]



- 1990년 2월 : 서울대 신문학과 졸업
- 1992년 2월 : 서울대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
- 2006년 2월 : 서울대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박사
- 관심분야 : 문화연구, 영상커뮤니케이션
- E-Mail : hgkim@tu.ac.kr